



건강보험산업 영향 요인 및 보험회사 의 대응 방안

이해랑 연구원

■ Ernst & Young Global Limited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생활여건 변화가 건강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,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.¹⁾

-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식습관, 다이어트 열풍,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생활여건 등으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의 건강 관련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.
- 보험소비자들의 건강 관련 행태 변화는 건강보험 보장대상의 변화를 의미하며, 보험회사는 이러한 변화가 건강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아야 함.

■ 건강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만성질환 증가, 모바일 기술의 발전(M-health technology), 빅데이터, 소비자중심의 보험경영 등을 언급함.

-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 세계 병원 진료비의 75%로 진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러한 만성질환은 고령화, 사무적인 생활 양상, 스트레스 증가, 잘못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 - 만성질환의 증가는 만성질환 진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를 의미하며, 이는 건강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- 만성질환 증가 양상에 따라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상품의 보장범위, 보장기간, 그리고 가격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모바일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최근 보험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.
 - 소비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 획득은 물론 운동 및 식단 조절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로부터 얻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

1) EY(2015. 8. 7), "The future of health insurance: A road map through change".

기기에 쉽게 기록하고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음.

- 만약 소비자들의 이러한 건강 관련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획득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가격 등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.

-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건강기록, 보험금 지급 요청, 진료 기록, 약 복용 기록, 그리고 모바일 건강관리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, 보험회사의 가격 정책 및 손해율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-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규정으로 진료 기록, 복용 기록 등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수집 기관이 분리되어 있고,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고객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이 규제되고 있음.

- 향후에도 규제에 따라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,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소비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더 쉽고 빠르게 소비자의 보험 상품 정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향상될 것임.

■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,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기술 강화, 디지털 기술 및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함.

-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중심의 경영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의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.
 -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건강 행태 변화를 위한 건강 관련 정보 및 상담 제공 등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중요함.
- 보험회사는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강화하고, 디지털 기술 및 건강 서비스에 특화된 기관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함.

(EY 등)